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안 미 정*

1. 머리말
2. 식민지시대 한·일 해녀의 이동
 - 1)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일본 출어
 - 2) 일본 시마(志摩) 해녀들의 조선 출어
3. 한·일 해역의 해양자원
 - 1) 일본의 우뭇가사리 수출과 어장
 - 2) 전쟁에 쓰인 해초, 감태
 - 3) 전복잡이에 응용된 서양 잠수기술
4. 여성출어자들의 생활세계
 - 1) 해산물을 따라 확장된 생활세계
 - 2) 조선 출어의 이동경로와 거점지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시대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동했던 한국과 일본의 해녀(잠수[潛嫂]와 아마)의 이동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이들의 이동을 낳은 것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의 영향이 크다. 이전의 봉건왕조와 막부간의 교역, 혹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 속에 전개된 ‘전통적’ 교역의 흐름과는 달리, 식민지시대 동안 물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B00001). 아울러 2014년 동아시아 해양도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해초와 전복을 찾아서: 식민지시대 해녀의 이동으로 본 한일 해역, 해역세계의 이주와 커뮤니티』, 2014.11.28)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gasirian@hanmail.net)

자(각종 자원)와 사람의 이동은 크게 달라졌다. 그 구체적 양상이 나타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주변의 한·일 해역이었다. 이 글의 요점은, 한·일 해녀의 이동에는 일본의 해산물 수요가 작용해 이들을 다른 어장으로 이동시켰으며, 이들이 채취한 것은 기존의 용도와는 다른 산업 및 군수품 원료 목적으로 채취된 것으로서, 해산물의 가격상승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은 돈벌이의 기회가 확장된 반면, 해양 생태계의 파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식민지시대 동안 한·일해역은 1) 해양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해양자원의 재생산 메커니즘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2)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산업적 - 특히 군수품의 - 원료로서의 가치가 일상적 가치에 우선하였고, 3) 채취자였던 한·일해녀들은 현금소득의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제주 잠수(潛嫂)들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평가되었다. 또 4) 일본 잠수기선이 조선연안에서 전복을 집중 채취함으로써 한·일 해녀들은 해초 채취 중심의 노동력이 되었다. 5) 전복 채취에 적용된 잠수기 기술은 서양의 기술이 일본적 변형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고효율성은 한·일 해역을 비롯 태평양 연안에서도 나타났다. 6) 한·일해역에서 잠수기선에 의한 생산이 현지 지역주민의 소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제주 잠수들의 활동은 한반도와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 연안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동에는 남성 인솔자, 현지의 집주인, 현지 어장 주인 등 여러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었다. 한·일 해역에 해산물 채취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들이 모자이크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녀들의 이동은 해양자원에 기반한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속에서 일어난 특수한 현상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에 따라 해녀들의 이동이 확대되었고, 이들의 노동을 통해 산업원료가 충당되었다. 한·일해역을 가장 많이 이동했던 해녀는 제주도의 잠수(潛嫂)들이었다.

* 주요어: 해녀(잠수와 아마), 해양자원, 여성노동력의 이동, 일본 제국주의, 한·일해역

1. 머리말

고대 지중해 세계를 생생히 재현한 페르낭 브로델은 그의 책 『지중해의 기억』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¹⁾ “바다를 보라.” 이 책에서 말하는 ‘지중해’란 물리적 공간으로서 지중해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생태적, 사회적 주변세계의 역사적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문화적 범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이 한 마디 말에는 ‘바다와 그 주변(外), 그 안(內=裏)’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새롭게 조명됨을 뜻하는 것이라 본다.

해양세계가 인문학의 연구주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학술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도 브로델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해역을 제국의 무대로 삼았던 일본의 경우 ‘바다’란 일국사의 바운더리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와 조우하는 연구영역인 것에 다름아니다. 가령 하나의 ‘해역’으로서 아시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논의가 그 하나인데,²⁾ 대항해시대로 시작되는 유럽세력의 아시아 진출 혹은 그 이전의 아시아 해역의 역사를 대칭적으로 뒀으로써 세계사를 조명하는 하나의 대항적 관점이다. 이때의 대칭적 중심축이 일본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아시아의 역사를 바다 사람들(종종 海民으로 표현되는)의 생활터로서 조망하는 논의들도 있다. 바다의 생태 혹은 바다를 터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이 두어진 이러한 논의에는 육상과 다른 ‘바다’의 영역을 강조하여 육지중심의 역사에 비판적 시선을 두고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바다에 관한 연구들이 하나의 공통점은 ‘대항해’라는 특정의 시점(대략 15-16세기) 이후 유럽세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세계의 역사적 변동을 다루며, 그 대항적 혹은 보충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해양세

1) Fernand Braudel, *LES-MÉMOIRES DE LA MÉDITERRANÉE*, 강주현 옮김, 『지중해의 기억』, 한길 히스토리야, 2006.

2)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참조.

3) 오모토 케이이치·하마시타 다케시 외 10인, 『바다의 아시아』 1, 2003, 다리미디어, 12~13쪽.

계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언제나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하나의 해역이 있는데 바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한·일해역이다.

‘해역(海域)’은 일정한 바운더리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육지 혹은 기존의 인식적 틀의 상대적이며 상호적인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앞서에서와 같이, 하나의 바다와 그 주변세계와의 생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문화적 범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주 언급되곤 하는 ‘바다를 통해’ 혹은 ‘바다로부터’ 보는 관점도 하나의 연구 틀로서 결국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간략화 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바다를 무대로 한 인문 사회과학적 접근으로서 해양 세계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역점을 두는 연구 둘째, 주변화되고 간과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연구로서 정치적으로 변방화된 사회들에 관한 지역 연구, 셋째 왕조중심·서구중심·육지중심의 역사적 서술과는 다른 서술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종합해 ‘바다’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일 해역세계를 무대로 식민지시대 전개된 여성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세계사 속에서는 ‘빈공간’으로 간주되거나, 항로를 통해 연결되는 점으로서의 해역세계가 아니라 보다 입체적 공간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생물의 자원화, 자원 수요가 발생시킨 여성노동력의 이동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한 이러한 현상을 통해 기존의 교역 항로로서의 바닷길, 그 연결점들로 형성된 해역세계와는 또 다른 ‘제국(帝國)의 바다’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해녀인가?⁴⁾ 일반적으로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의 조선 통치 기간 동안은 한국사에서 식민지 지배로 인한 억압과 착취의 시

4) ‘해녀(海女)’는 해산물을 채취한 여성을 말하며,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한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역사를 가진 어로집단이 아니다. 현지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문맥에 따라 제주의 경우 잠수(潛嫂, 잠수), 일본의 경우에는 해녀(아마, あま)라고 하겠다.

대이자 봉건왕조에서 근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기였다는 것이 한국 역사계의 주론이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 총체적 사회변동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나 한시적으로 타지에 이동해 해산물을 채취하곤 했던 제주 잠수(잠녀, 해녀)들의 역사는 항일항쟁사의 일부, 혹은 여성들의 고된 타향살이에 따른 애환과 설움, 나아가 제주여성의 도전과 진취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해녀의 이동에는 무엇보다 어장이라는 바다가 필요하고, 해산물 및 인력 유통이 이뤄지는 시장, 노동 인력의 수급, 이동 교통수단 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특히 식민지시대의 채취한 해산물의 주요 소비지는 중국과 일본이었다. 게다가 이 시대에 이들의 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식민지 지배의 구조적 양상 및 동아시아의 교역체계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식민지시대의 한·일해역에서 채취활동을 했던 한·일 해녀들은 해역세계를 기층집단으로부터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본 아마(海女)는 조선에 출어했으며 조선의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한반도 및 일본의 출어 했었다. 상호 교차식 출어에는 이들의 이동에 개입된 다양한 매개자들이 있었다. 이들을 모집한 모집인과 해조상인, 현지 어장주인 등. 반면 일본 아마들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조선으로 출어했다. 현재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들이 구술되고 있으나 개인적 경험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기층 여성들의 이동을 해역세계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식민지시대 한·일 해녀의 이동

20세기 전반, 한·일 해역에 큰 이동의 흐름을 낳은 것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함께 일어났다. 이전의 봉건왕조와 막부 간의 교역, 혹은 조공체제 속에 전개된 ‘전통적’ 교역의 흐름과 달리, 조선과 일부 중국대륙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는 물자(농수임광업 자원)가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었

고, 사람들의 이동을 촉발시켰다. 여기에는 일본의 조선지배라는 동아시아 정치적 변동이 큰 요인이며, 그 양상이 구체화 되어 나타난 곳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 주변의 한·일 해역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은 일본 어민들의 조선 출어계기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3년 뒤인 1879년 조선 바다에 ‘선구자’로 잠수기(潛水器)업자들이 조선 해역에 진출하였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 의해 일본 어민들의 진출이 합법화 됐으나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 주변 해역은 1890년에, 1900년에는 경기도가 추가되었고, 1904년 러일전쟁 직전 일본인의 통어 해역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는 양국 사이의 바다를 ‘하나의 바다’로 만들었고, 곧 일본어민에게는 ‘열린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변방의 섬’이었던 제주도 잠녀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집인”들이 마을의 여성들을 모아 다른 어장으로 “인솔”했다. 15~20 여명의 작은 집단을 이룬 여성들이 제주도 밖의 타지 어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현금소득의 기회를 가졌다. 그렇다면 이 이동은 풍요로운 기회의 시간이었을까?

1)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일본 출어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 해상의 위치한 화산섬으로 이 섬의 전복은 조선 시대 주요 진상품의 하나였다. 전복을 채취했던 남성들(鮑作人)이 감소함에 따라 그 부역은 미역을 채취하던 여성들(潛女)에게 전가되었다. 19세기 말, 수산물 상품경제에 의해 이들은 한반도의 남부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나,⁵⁾ 이동의 대전환기는 1910년 한일병합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5) 제주도 잠수(潛嫂, 잠수)가 외부 지역으로 이동한 그 시작은 1879년 전라남도 청산도였다고 하거나, 1880년 경상남도 울산과 기장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다도해 각 도서와 거제도, 부산 근해, 경상북도 각 연해와 강원도, 함경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1895년 부산의 영도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 제주: 제주 문화, 2001; 최성애, 『해녀의 이주생활사: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연구』, 『水産業史研究』 2, 수산업사연구소, 1995;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각, 2004, 259쪽 등을 참조.

이러한 이동의 이유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다. 첫째, 일본 잠수기선(潛水器船)의 한반도 진출로 인해 제주도 주변 어장이 황폐화 되었으며, 둘째, 제주와 일본으로 연결된 해상교통 수단의 발달하였고, 셋째, 제주도 부녀자들의 현금소득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 내부적 요인 외에도 이동을 촉발시킨 데에는 외부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첫째, 당시 채취된 해초들은 일제의 수산 및 군수산업의 원료가 되었으며, 둘째, 이를 채취하기 위한 노동력이 일제의 ‘모집’을 통해 이뤄졌다. 결국 이들의 이동한 거시적 배경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⁶⁾

이처럼 제주 섬 ‘밖’으로 출어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외에도 일본의 태평양 연안 일대 및 중국의 대련(大連)과 청도(靑島),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출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이동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다음의 표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1> 1920-30년대 제주 잠수 출어 현황

연도	출어 잠수 수(명)	송금액(엔)	비고(명)
1929	4,310	-	
1930	3,860	908,000	
1931	3,950	687,350	
1932	5,078	1,100,000	일본 1,600/ 국내 3,478
1936	3,360	770,000	
1937	4,402	-	일본 1,601/ 국내 2,801
1939	4,132	-	일본 1,548/ 국내 2,584

자료: 朝鮮總督府, 『濟州道勢要覽』, 1939(진관훈, 2004: 266 재인용).

대략 1930년대를 통틀어 제주 섬을 나간 잠수는 해마다 약 4천명에서 5천 명 가량 안팎이었다. 이러한 이동이 제주도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

6) 제주도, 『濟州의 海女』, 1996; 진관훈, 앞의 책, 각, 2004; 이지치 노리꼬, 『제국 일본과 제주도 출가 잠수』, 『글로벌시대의 여성과 생활실천』(동국대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1, 74~110쪽; 안미정, 『‘열린’ 바다 위의 분쟁: 식민지 관행과 해양자유론의 재고찰』, 『日本學』 34,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120~ 150 쪽 등을 참조.

을 미쳤을까? 당시의 제주도 지역경제를 분석한 진관훈(2004)은 ‘해녀노동’이 제주도 농촌 경제력을 상승시키고 노동력 기반을 확충시켰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00년 이전의 제주도는 외부와의 교류가 드물고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했으나 이러한 ‘고립적, 폐쇄적 분위기를 가장 먼저 일소시킨 요인’이 “해녀노동”이었다. 즉 일본 무역상의 등장으로 해산물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해녀노동의 가치도 증가하였다.

이들은 교통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타지로 이동했으며 이들이 고향으로 송금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초석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들의 이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변화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종래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했던 인구가 해안지대로 이동하였다. 포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마을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비단 해녀만이 아니라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일어나 1930년대에는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4가 이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연령과 성별을 보면 20대~50대 자작농 출신 남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결과 도내의 노동력 부족으로 노약자와 여성노동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⁷⁾

〈표 2〉 1930년대 제주 잠수들의 이동지역과 인구수 (단위: 명)

연도	지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한반도	408	19	1,650	473	110	54	32	5	50
1937	일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静岡	千葉	愛媛	徳島	합계
		750	130	55	215	65	265	51	10	50	1,591
1939	한반도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강원	함남	함북	황해	합계
		367	7	1,581	308	141	60	106	-	14	2,584
	일본 외	對馬島	高知	鹿兒島	東京	長崎	静岡	千葉	愛媛	青島	합계
686	95	18	144	54	365	67	35	28	1,492		

- 1) 1939년 *청도는 중국의 칭따오를 말한다.
- 2) 일본과 일본 외 지역의 합계는 인용 원문(강대원 2001: 146)의 오차를 정정하여 제시하였다.

7) 진관훈, 앞의 책, 269~270쪽.

〈표 2〉는 1937년, 1939년 제주잠수들의 이동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 외에도 주요 출어지역으로 일본의 많은 연안 지역으로 이동이 전개되었다. 제주도내보다 타지, 특히 일본으로의 출어가 활발했던 것은 소득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29년 제주도내 잠수 7,300명이 약 25만 엔을 벌어들인 데 반해, 일본으로 출어한 경우 3,500명이 40만 엔을 벌어들였다.⁸⁾ 평균적으로 도내 잠수 1인당 약 34.2엔을 벌었다면 일본 출어한 경우에는 1인당 114.2엔을 벌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일본 출어자가 도내에서보다 3.3배 높은 소득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별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현지에서 제주 잠수들의 소득은 아마들보다 낮았다.⁹⁾ 제주도 잠수들의 출어는 일본의 어장이 하나의 시장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으로 해산물을 채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잠수들의 이동했던 이면에는 이들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던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어했던 잠수들의 해산물 분배과정을 보면, 그들의 이동을 매개했던 모집인, 일본인 해조 상인, 현지 일본인 어장 주인, 지역의 어업조합 등이 관여하고 있었다. 결국 한 잠수가 채취한 해산물의 시장소득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¹⁰⁾ 식민지 지배를 통해 일제는 한반도 주변 어장을 하나의 ‘열린 바다’로 만들고 있었으며,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일본 시마(志摩) 해녀들의 조선 출어

시마(志摩)는 흔히 이세시마(伊勢志摩)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쿠리야(御廚), 미노쿠리야(御ノ廚)라고도 한다. 미쿠리야는 ‘천황가, 이세신궁 등에

8) 위의 책, 266쪽.

9) 김영·양징자, 정광중·좌혜경 옮김,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제주: 각, 237쪽.

10)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耽羅文化』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462~463쪽.

제물을 진상하고, 생선과 조개류 및 기타의 식재료를 공진하는 곳'을 말한다.¹¹⁾ 이세신궁에 각종 식재료를 헌상해 온 역사가 '신궁의 부역'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시마국(志摩國)도 미케쯔쿠니(御食つ國)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세신궁과 천황가에 바치는 가장 대표적 산물이 전복이었다. 따라서 이세시마(伊勢志摩)의 해녀란 곧 시마의 해녀를 말하고, 오늘날 미에현(三重縣)에서도 해녀가 많은 토바시(鳥羽市)와 시마시(志摩市)의 해녀를 지칭한다.

시마(志摩)는 어장이 풍부한 반면 경지 면적이 작고, 논밭이 영세하여 생계에 주요기반은 바다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시마의 남자아이들은 어업인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해녀가 되었다. 근해뿐만 아니라 원양으로 나가는 등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특히 여자들은 결혼의 주요 조건이 해녀여야 하는 시대도 있었다.¹²⁾

시마 해녀들의 조선 출어는 단지 '해녀'로서가 아니라 일본 어민이라는 큰 틀에서 이들의 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전모를 알기란 쉽지 않다. 지역의 신문과 문헌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해녀들은 한반도 외에도 홋카이도와 이즈반도 등으로 출어 했었다.¹³⁾ 이들 자료를 통해 밝혀진 이 지역 해녀들의 조선으로의 출어는 189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1891년부터 조선 출어가 시작되었다는 신문 기사자료가 있고, 1897년에는 고용인을 통해 출어했다는 것으로 보아 보다 조직적으로 출어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해녀들은 부산과 오사카의 상인들이 이들의 고용주였으며, 제주도 부근에서 해초를 채취하였다.¹⁴⁾ 또한 해초나 전복 등을 채취하는 외에도 '수이리(潛水)'라는 일종의 잠수 쇼를 목적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11)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志摩町史』, 志摩町教育委員會, 2004, 62쪽.

12) 위의 책, 277쪽.

13) 일본어에서 타지로의 출어를 데카세기(出稼)라고 하며 이는 일본 어민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이었다.

14) 塚本 明, 『近代の志摩海女の出稼ぎについて』, 『三重大史學』, 三重大學, 2010, 51~53쪽.

〈표 3〉 시마(志摩) 해녀의 조선 출어 시기와 규모

마을	시기	조선 출어 경위와 지역	인원
토우시(答志)	1901년(明治34)	미에현 조선해통어조합에 고용	-
	1908년(明治41)	부산에서 원산으로	176명
	1909년(明治42)	원산, 목도(영도), 대변항	남 58, 여 145
스가시마(菅島)	1901년(明治34)	미에현 조선해통어조합에 고용	-
나카리(波切)	1899년(明治32)	-	-
	1910년대(大正 頃)	-	-
	1922년(大正11)	매년마다 조선 출어	매년 10 수 명
구자키(國崎)	1892년(明治25)	가타다 촌과 함께 출어	50명
	1922년(大正11)	조선, 사할린에 출어	-
아노리(安乘)	1922년(大正11)	조선, 시즈오카, 전북 천초 채취	20~30명
후나코시(船越)	1899년(明治32)	경상남북도 여러 지역	-
	1910년대(大正 頃)	경상남북도 여러 지역	-
	1922년(大正11)	경상남북도 여러 지역	-
	1945~1937년 경(昭和10~12년 경)	원산에서 '수이리'(潛水소)	20명
후세다(布施田)	1899년(明治32)	-	-
	1919, 1920년(大正 8, 9)	-	4~5명
가타다(片田)	1892년 경(明治25頃)	구자키(國崎) 촌과 함께 출어	50명
	1899년(明治32)	-	-
	1910년대 초(大正 初)	조선에 '수이리'(潛水소)	-
	1919, 1920년(大正 8, 9)	-	50 여명
와구(和具)	1894년(明治27)	고용한 단녀(蠶女) 큐슈에서 조선 독도로, 해조채취	단녀 57명, 남자 16명
	1922년(大正11)	-	-
고시카(越賀)	1895년(明治28)	전북, 해라 채취	-
	1922년(大正11)	경상도 방면	-

출처: 塚本 明, 『近代の志摩海女の出稼ぎについて』, 『三重大史學』, 2010.10, 48~49쪽.
조선출어 부분만을 추려 필자가 재작성.

시마 해녀들의 출어는 마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해녀들의 이동에는 조선의 잠수들과 마찬가지로 해상 교통수단이 발달로 이동이 용이해진 점도 있었다. 게다가 지역의 어획고 감소도 이

동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1922년 미에현 어촌조사표에 의하면, 가타다(片田)에서는 어획이 줄고, 와구(和具)에서는 다랑어와 참치 연승이 차차 쇠퇴하였으며, 고시카(越賀)에서도 콩치 잡이 등 어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고자(御座)에서는 천초류의 생산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전복과 소라 등의 통조림공장과 조개단추 제조도 일시 성황을 누렸으나 불황 상태였다.¹⁵⁾

일본 해녀들의 조선 출어는 메이지시대 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현상이었고, 식민지시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해녀의 이동 양상은 표면상 줄어들었다. 그 까닭은 이주어촌 정책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조선 제주의 잠수들은 식민지시대 이후 일본으로 대거 출어하였다. 조선의 제주 잠수들은 한·일 해역에 형성된 해산물 채취 시장의 가장 큰 노동력이었다.

3. 한·일 해역의 해양자원

한·일 해녀들은 무엇을 채취하였는가? 당시 이들이 채취하였던 해산물, 곧 상품화된 해양자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채취한 해산물은 천초, 감태, 그리고 전복이었다. 바다의 다양한 해양생물들 가운데에서도 ‘자원’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해산물에 대한 상품적 가치, 곧 시장의 수요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가치이다. 그런데 식민지시대에 들어서 한·일의 해녀들이 여러 바다로 이동하며 채취한 것은 전복을 제외하면 식용만을 위한 해초도 아니었다. 여러 구술자료를 통해 볼 때,¹⁶⁾ 이동하던 해녀들이 주로 채취한 것은 해초에 편중되어 있었다. 미역, 전복 등이 자급을 위한 식량과 진상용 해산물이었던 반면, 20세기 전반 상품가치를 얻

15)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202~203쪽.

16) 이 글에서 참조한 자료는 제주도, 『濟州의 海女』,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파피루스, 2004; 제주특별자치도, 『숨비질 베왕 늬주지 아녀: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보고서』, 2014.

은 해산물은 천초와 감태였다.

1) 일본의 우뭇가사리 수출과 어장

흔히 우뭇가사리라고 부르는 천초(天草)는 홍조류의 해초이다.¹⁷⁾ 늦은 봄 초여름 사이 얇은 수심에서 채취할 수 있다. 천초를 수 일간 찬바람에 맞혀가며 건조하면 하얗게 빛이 바래어 이를 한천(寒天)이라 부른다.¹⁸⁾ 우뭇가사리는 역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뭇가사리는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양질의 천초는 제주와 동남해안 일대에서 생산되어 왔다. 일부 어촌에서는 천초를 이용해 여름철 우무를 만들어 먹는 등의 식용 원료이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보편화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옛 기록(『延喜式』)에 언급될 만큼 일본에서 우뭇가사리는 일찍이 교역품의 역할을 하였고, 에도시대에는 비료로도 사용되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천초는 식료용(우무, 양갱) 외에도 공업용(호료, 양조용, 도료용, 인쇄용), 의약품(배독, 완하제, 정장제, 고약과 붕대, 혈액 응고 저지), 화장품, 그리고 세균배양을 위한 배지 등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의학, 농학, 수산학, 양조학 등 각 방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였다. 세계적으로 한천에 대한 국제적 수요도 증가하였다. 1892년 당시 일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중국 등지로 한천을 수출하고 있었다.¹⁹⁾

1892년 일본 외무대신의 훈령을 받고 조선 근해 어업시찰에 나섰던 가이자와 메이세이(開澤明清)은 “조선산 천초는 그 품질이 일본 본토의 시마(志摩), 이즈(伊豆) 등지에서 생산되는 것에는 못 미치지만 기슈(紀州)의 상등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⁰⁾

〈표 4〉는 1888년부터 1891년까지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천초

17) 학명 *Gelidium amansil* L.M.X.

18) 三浦定之助, 『海草』, 東京: 佃書房, 1943, 180쪽.

19) 伊地知紀子, 앞의 논문, 80~81쪽.

20) 伊地知紀子, 위의 논문, 79쪽.

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불과 4년 사이에 천초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5배가량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4〉 부산항의 천초 수출 현황

구 분	가사리		우뭇가사리	
	수량(근)	가격(엔)	수량(근)	가격(엔)
1888년	826,996	26,217	322,632	4,878
1889년	875,122	31,031	360,472	7,136
1890년	642,985	24,634	411,400	11,762
1891년	948,562	31,196	598,159	20,000

출처: 開澤明清(1894), 『朝鮮近海漁業視察』, 外務省通商局 第課(伊地知紀子, 2011, 81쪽 재인용)

다양한 쓰임새를 가졌던 산업원료인 천초는 19세기 후반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고, 1910년 한일병합 이전 일본은 이미 조선의 천초 어장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수희의 지적에 따르면, 조선의 천초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은 1877년부터이고, 1893년 오사카 비단제조상들과 상인조합에서는 조선산 가사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부산 총영사관에 문서를 보내 가사리 품질검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당시 천초의 주요 쓰임은 비단의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원료였고 일본산(日本産)에 비해 품질이 좋아 일본 비단 제조상들이 선호하였다.²¹⁾

1929년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 기사에서도, 경상남도 앞 바다의 어획고는 일본인들의 주요 어장이었고, 이곳의 어획고 조선의 1/3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속에 ‘제주도 해녀’가 왕래하며 출어하였고 그 인원이 1,000명 가량이었다.

21)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제주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6.6.7~8.)』,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73~74쪽.

부산 서편은 개류(介類)의 번식이 잘되고 동편은 조류의 번식이 잘 되는 까닭에 매년 제주도 해녀가 와서 통어하는 것이 1,000명 가량이요, 일본에서 통어하는 자가 1,500명으로 매년 400-500명씩 증가하는 중이고, 1925년 말 현재의 동도(경상남도) 안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업자 2,984호, 조선인 어업자 20,867호 통계[상으로는] 23,851호인데, 해안선 580리에 비하면 매년안선 1리에 평균 42호이요, 어선 수는 일본인 3,142척, 조선인 6,141척, 해안선 1리(약 4백m)에 17척 평균인데 이외에도 일본인의 통어선(通漁船)이 449척에 어업자가 6,226인이나 있고 총어획고 1,858만원, 해안선 1리에 32,596원 평균이요 제조고가 928만원에 달하는 것을 합병 당시에 비하여 어획고로서 7배의 증가, 제조고로서 10배의 증가이다. 조선 어민에게는 실수입이 그 당시에 비하여 반비례하고 있다.²²⁾

천초의 가격은 다른 해초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1916년 천초는 미역과 가격 비교할 때 66배가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1930년에는 1,066배나 가격차이가 벌어졌다. 이처럼 미역과 천초의 뒤바뀐 시장가치는 식용보다 산업용 원료가 더 중요해지게 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본정부는 천초를 판매 금지시키고 전량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체제 하에서 군수용으로 이용하였다.²³⁾ 이러한 일본이 조선에서의 천초 채취는 제국 일본의 세력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축적하는 중요한 토대였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가진다.²⁴⁾

2) 전쟁에 쓰인 해초, 감태

감태(甘苔)는 다시마처럼 수심 2미터에서 10미터 사이의 암초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갈조류이다.²⁵⁾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본의 규슈 북부와 혼슈 중부의 태평양 연안에 분포한다. 한·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에

22) 『동아일보』, 1929. 6. 17.

23) 三浦定之助, 앞의 책, 184쪽.

24) 伊地知紀子, 앞의 논문, 81쪽.

25) 학명 *Ecklonia cava*. 미역과에 속하는 갈조류.

부근에서 잘 자라고, 전복의 먹이 중 최고로 치는 해초이다. 감태는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감태재를 신경통, 류마티스 등에 좋은 입욕제로 사용하기도 했고, 메이지 중엽(19세기 후반)에 요오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의료용 외에도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료로 쓰이기도 했다. 1920년 중반부터는 분말로 만들어져 미국으로 다량 수출되기도 하였다. 감태는 지방에 따라 그 성분의 함량이 다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미에현(三重縣)의 감태는 요오드 함유량이 일본 제일이고 그 다음이 보소(房州)다”라고 할만큼 미에현의 감태가 유명하였다.

제주 잠수들의 구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태는 태풍에 떠밀려 온 것을 가져다 비료로 활용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그리고 감태의 중요성은 오히려 먹이사슬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태는 전복의 먹이기 때문이다. 감태와 전복의 관계는 불가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속설에서도 “감태 암초 하나로 논이 십정보(3만평)”라고 할만큼 감태가 자란 바위는 전복이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감태로 요오드를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전복의 먹이가 사라지는 문제가 일본의 한 지면 상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다.²⁶⁾

일본이 감태를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태평양전쟁과 관련이 깊다. 잘게 썬 감태를 식용으로 다량 만들었을 뿐 아니라, 화약의 원료로 쓰였다. 이에 필요한 감태를 감태 납입령(納入令)으로 각 어촌에서 총당케 하였다.²⁷⁾ 이 과정은 한 인물의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미에현 시마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는 와구(和具) 출신의 이시하라 엔키치(石原圓吉)는 일본 수산업의 선구자이자 지역사회에도 공헌한 인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는 1895년 자신의 고향인 와구 외에도 수산물가공 설립을 장려하였고, 만들어진 수산물통조림은 전시식량인 군수품으로 출하되었다. 그가 설립한 공장 가운데 감태를 이용한 요오드 공장도 있었다. 감태를 원료로 하여 가

26) 三浦定之助, 앞의 책, 128~129쪽.

27) 위의 책, 146~147쪽.

공된 일부분은 의약품으로 하고, 또 일부분은 최종적으로 칼륨으로 가공하였다. 칼륨은 염산칼륨으로서 화약의 원료가 된다.²⁸⁾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 즈음 군부에서는 증산을 장려하고, 당시 각지에서 일시적이지만 대량 생산이 행해졌다.²⁹⁾ 와구의 옆 마을 가타다(片田)에도 요오드 공장이 생겨, 최전성기에는 종업원 수 백 명을 고용하는 등 그 생산이 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산 목적을 위해 이시하라(石原)는 제주도 성산포와 서귀포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는 육군성과 농상무성의 하달을 받아 4000톤의 납입량을 채워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에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이었다.³⁰⁾

제주도 성산포는 일출봉으로 유명관광지이지만, 식민지시대 이곳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수산 가공공장을 짓고 일본과 왕래가 잦았던 곳이었다. 1925년 이 마을에서 태어난 신영춘씨의 구술에 따르면, 성산포에는 여러 수산물 가공 공장들이 있었으며, 감태 채취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³¹⁾

면담자: 감태공장 운영했던 사람이...?

신씨: 다 일본사람! 왜정 때.

면담자: 공장이 어디에 이서나수과?

신씨: 옳로 이레 다 저 꼬장 감태공장. 간쓰메(통조림) 공장은 요, 크지 안허주게 막 반양 그냥 수량허게 몇 천키로 반양 크~은 가매(가마솥)에서 솥아내영 그거 딱 열양, 계민 그거 우리도 돈 버슬레도(벌러도) 뎡겨났주. 경헨 그거 몇 번 솥아내언 그 간쓰메허영 다 일본 더레 수출 나가고, 일본 다 수출 나갔주 그 간쓰메. 툇(툇)도 또시 막 반양 삶양그네 몰려와그네(말려서), 또시 그거 감태 끓영 물들

28) 산화력이 세고, 유기물, 붉은인, 황 등과 함께 가열하면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냥, 불꽃놀이용 화약, 폭약 등의 원료로 쓰일 뿐 아니라 표백제, 염료, 의약품 등의 제조에도 쓰인다.

29)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161쪽.

30) 石原翁伝刊行委, 『石原圓吉翁伝』, 東京: いさな書房, 1969. 러일 전쟁 승리 후 이 공장은 정어리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794쪽). 그러나 당시 주민의 구술자료에 의하면, 식민지 시대 동안 성산포의 감태공장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자택에서 면담, 2013. 8.14. (제주특별자치도, 앞의 보고서, 240쪽).

영, 또 툇공장(도) 여자들 해영 그것도 다 일본 수출. 왜정 땀 왜정 때라. 감태공장, 이제 간쓰메 공장, 툇 공장.

면답자: 공장이 맛밧해났구나예(즐비했었네요)?

신씨: 툇공장은 설르건디가(그만둔지가) 오래지 안 해서. 올로 내려가면 바로. 요 집 지스디도 감태공장 저끝에도 감태공장, 그 중간에 툇공장에 또시 간쓰메공장에, 맛밧 다 그냥. 저끝으로 시작하민 요 디꼬지(여기까지), 이디도 다 감태공장해난디 집들. 감태공장이 잘도 커. 그걸 다 무소와, 무소와. 그걸 몰리와그네 또 소랑그네 떡 같이 되주게. 그것 또 부수왕 그것도 딸리고, 요도(요오드)렌 현거 만들민. 그거 못 만드는 것이 언넌 허여(없다고 해), 막 약초!

면답자: 감태는 조물야그네마썸(캐내서요)?

신씨: 지금은 조물게(캐내게) 못 햐주. 그땐 조물아서(캐내서). 다 배로 조물양. 조문도 허곡 올라온 거도 허고. 오조리배, 성산배 곳(가)으로 조물양도 오곡 막 커났지.

면답자: 친정어머니도 조물고마썸?

신씨: 우리 어머니도 감태 조물곡 안음으로 안양(한아름 안아서), 배로 큰 배로 실겨왕 퍼그네 다 몰리왕(말려서), 몰린 채로도 풀고(팔고) 또 불 패왕(피워) 떡 같이 되어 그 썸땡이 같이. 그거 근으로 떠그네, 그걸 따시 부수왕 공장에서 다. 성산은 완전히 감태공장, 툇공장, 소라공장.

성산포에 들어선 가공 공장에서 소라와 툇 통조림 외에도, 감태공장에 서는 감태를 태워 굳은 것을 다시 부순 후 이를 끓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 달인 액으로는 “요도징끼(요오드팅크, 옥도정기)”를 만들었기에 마을사람들은 감태공장을 “요도공장”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문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감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출신의 스즈키(鈴木)씨가 독점적으로 매수하고 있었으며, 이를 사가현(左賀縣) 마쓰오(松尾)씨가 문제제기 하여 취소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또 문서에는 감태 채취가 “요오드의 원료이고, 매수를 특허하는 것은 도리어 섬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³²⁾ 여기서 제주도 감

32) 『統監府文書 1권』의 「12. 農工商務部事務公債 1·2 (8) 한국정부와의 교섭사항」 (한국사

태가 독점적으로 매수되었다는 것과 감태 매수를 둘러싼 일본인들의 경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즈키씨가 자신이 “특허를 받게 된 전말”을 언급하며, 독점적 매수권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그 전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알 수가 없다. 감태는 식민지시대를 통틀어 가장 크게 떠오른 해초였으며, 적어도 이 기간동안 감태는 전복의 먹이가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의 차지였다.

3) 전복잡이에 응용된 서양 잠수기술

일본이 조선 식민지 통치는 바다에서 새로운 현상들을 만들었다. 제주 잠수들의 이동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한 해초가 있었고, 전복을 잡는 기술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에도시대 말기 일본은 많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잠수기선(潛水器船)도 그 중의 하나였다. 오오바 토시오(大場俊雄)에 의하면, 일본 최초 잠수기선이 사용된 것은 1858년으로 나가사키의 아쿠노우라(鮑ノ浦) 해안 안벽 축조를 하면서였다. 영기종(泳氣鐘)이라 불린 잠수기선은 해중에 침수시킨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형태였고,³³⁾ 보다 수월하게 바다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잠수기선은 요코하마에서 등장했다. 1866년 요코하마항의 영국 탄약창고선 배 바닥을 수리하기 위해 영국군함 바로샤호에 달린 헬멧식 잠수기선이 사용된 것이다. 잠수부는 고무복을 입고 헬멧을 착용해 잠수했고, 신발을 착용, 선상과 육지로부터 헬멧 속으로 보내지는 공기를 마시며 잠수했다.

그 후 이 기술이 1877년 치바현 보소반도의 한 마을에서 전복잡이에 응용되었다.³⁴⁾ 일본은 일찍이 나가사키를 통해 중국으로 말린 해삼과 전복,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참조 <http://db.history.go.kr> 2013. 10. 14 검색, 검색어: 감태).

33) 이것은 1793년 데지마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주문한 영국제 잠수기였다. 상부에 공기구멍이 있고, 유리창을 두어 밖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834년 나가사키에 도착해 사용되기 시작했다(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 온라인 자료 참조, <http://www.mhi.co.jp/company/facilities/history>, 2014. 10. 1. 검색).

34) 大場俊雄, 『房總の潛水器漁業史』, 峯書房, 1993, 10~15쪽.

그리고 상어지느러미(이 세가지를 타와라모노[俵物라고 한다)를 수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잠수기선을 도입한다면 고가의 전복을 대량 채취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에 잠수기선이 마을어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1880년 1월 이세만(伊勢灣) 입구에 있는 토우시지마(答志島)를 시작으로 오오사쯔(相差), 나기리(波切), 고시카(越賀) 등 순차적으로 잠수기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각 마을의 유지들과 제휴해 한대의 잠수기가 시험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1878년 이후 불과 1, 2년 사이에 잠수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³⁵⁾

그러나 이 새로운 어업기술에 대한 규제는 미정비상태였고, 잠수기의 무제한적 사용은 전복의 남획을 초래하였다. 1881년 미에현에서 작업한 잠수기선의 경우 하루 1대의 잠수기선이 어획한 전복은 450kg에서 675kg이었다.³⁶⁾ 얼마 지나지 않아 전복 자원의 고갈을 우려한 규제가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에현 토우시지마에서는 1880년 잠수기어업을 시작하였으나 1882년 미에현에서 잠수기사용 규칙을 공포하였고, 홋카이도에서는 1879년 잠수기어업을 시작했으나 1881년 수심 15척 이내 잠수기어업을 금지했다. 치바현에서도 1878년 시작한 잠수기어업이 1884년 현내 수산집담회를 통해 잠수기사용제한을 가결하였다. 결국 1882년 농상무성에서는 연해지역에 잠수기어업의 단속방법에 대해 하달하기에 이른다. 선박 수리와 연안 축조공사 등에 쓰였던 잠수기 기술은 마을 어장의 전복 잡이에 응용된 지 불과 2-3년 만에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³⁷⁾

하지만, 이미 대량 채취를 입증한 잠수기선이 어장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879년 조선에 진출한 잠수기업자들은 제주도를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복과 해삼을 채취했으며, 1기에 불과했던 것이 1906년에는 300기에서 400기로 증가했다.³⁸⁾ 일본 연안의 잠수기어업자들이 새롭게 ‘개척’한 바다는 한반도 주변 해역 외에도 캘리포니아 앞바다 그리고 남태평양

35) 위의 책, 16쪽.

36) 위의 책, 20~21쪽.

37) 大場俊雄, 위의 책, 18~19쪽.

38) 稻井秀左衛門, 1941: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朝鮮纖維協會, 1937, 15~16쪽.

까지 확장되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경우 잠수기선에 의한 남획이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1908년 어업법에 의해 잠수기 수량의 제한이 가해졌으나, 1931년 조선총독부의 지도로 잠수기어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당시 조업구역과 한정 대수를 설정하는 등 자원 보호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미 제주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황폐화 된 상태였다.³⁹⁾ 전복잡이를 금지했던 것은 1932년 경상북도 지역에서 조선총독부령으로 2년 동안 금채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⁴⁰⁾ 그리고 규제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실상 그것은 유명무실하였고, 전복 생산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과도 무관하게 전개되었다. 당시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1935년 경상북도에는 경상남도 소속의 잠수기 16척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통조림으로 가공된 전복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⁴¹⁾

<표 5> 1935년 경상북도 수산업 실태

어업별		종사선(척)	승조원(명)	어획고(엔)
잠수기(潛水器)	조선인	-	-	-
	일본내지인	16	96	26,693
나잠(裸潛)	조선인	-	269	14,220
	일본내지인	-	-	-
포패채조(捕貝採藻)	조선인	653	4,542	127,592
	일본내지인	24	59	1,413
총계(기타 어업 포함)	조선인	5,915	29,204	1,968,138
	일본내지인	1,204	10,101	3,739,135

자료: 『동아일보』, 1935. 8. 7. 표는 필자가 작성.

1879년부터 1945년까지 66년 동안 잠수기선에 의한 전복 남획은 무방

39) 伊地知紀子, 앞의 논문, 78쪽.

40) 『동아일보』, 1932. 5. 28. 신문에 언급되어있지만, 이 시행령은 일본에서는 치바현과 미야기현의 예가 있었으나 조선에서 전복잡이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다.

41) 『동아일보』, 1935. 8. 25.

비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1910년대부터 제주의 전복들은 소형화되기 시작했으며, “조선에는 전복이 연해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 양 또한 풍부하였다”는 말은⁴²⁾ 지금까지도 옛말로 남아 있다.

일본 해녀들이 말하길 “전복은 감태를 먹이로 하고 천초를 부식으로 하여 일본 제일의 맛”이라고 한다. 감태와 천초를 먹어 잘 자란 전복이 그 맛도 으뜸이라는 것이다.⁴³⁾ 제주 잠수들의 민요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산물은 전복이었다.⁴⁴⁾ 귀한 가치를 가진 해산물은 그것의 생태적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해산물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어장, 근대적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자원 남획이 일어났고, 그것은 먹이사슬의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파괴적인 것이었다.

4. 여성출어자들의 생활세계

돈벌이라는 분명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이동은 그들의 생애에 어떠한 경험으로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한·일 해역은 어떤 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 시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돈벌이라는 목적을 위해, 잠수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출어’로 형성된 생활세계는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생활세계였다. 가족을 단위로 하였거나 여성들끼리 소그룹을 이루어 출어하든지 한일 해녀들의 이동은 단지 식민지시대의 특수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동의 경험은 더 넓어진 바다와 더 넓어진 네트워크 속에 있게 되는 것으로 경제적 결과 이상의 확장된 생활세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출어자들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2) 진관훈, 앞의 책, 259쪽.

43) 三浦定之助, 앞의 책, 198쪽.

44)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328쪽.

1) 해산물을 따라 확장된 생활세계

제주도민이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한시적으로 타지에서 벌이를 한다는 것은 19세기 말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일이었다. 봄에 집을 떠나 가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계절적 이동은 제주도 잠수들의 일반적 노동 패턴이었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섬을 떠나 물질한 후 돈을 벌어 돌아오는 것을 두고 흔히 “바깥에 나갔다”거나 “영업 갔었다”는 것으로 말한다. 그래서 민속학자 김영돈 교수는 이를 ‘바깥물질’이라 명명하였다.

바깥물질을 통해 제주 잠수들의 경제적 활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녀경제처럼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가구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바깥물질로 번 돈으로 잠수들은 농토를 사거나 집을 개량하고, 혼례비와 혼수품 구입 등 대부분 목돈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으로 수당하였다. 고령의 잠수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바깥 물질의 경험은 제주사회에서 보편적 담화이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 보면, 여성이 이동하였던 경험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바깥물질의 경험이 있는 제주 잠수의 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안과 밖이 하나로 이어진 생활세계

강효심씨는 1921년생으로 성산을 신산리에서 태어났다.⁴⁵⁾ 어릴적부터 마을 앞바다에 들어가 돌을 가져오는 시늬를 하며 자맥질을 배웠다. 고동, 해삼을 잡기 시작할 15세에 처음 부산으로 나갔다. 그리고 이후 청진과 제주를 오가며 물질을 하였다. 부산 남천동에서는 천초, 고동(소라), 전복을 잡았고, 19세에 결혼하고 제주에 살며 20세에 통영으로 가 미역 채취와 전복을 잡아 당시 돈 3천원을 벌었다. 그 돈을 시아버지한테 드렸더니 동네에 자랑하며 800평의 밭을 하나 샀다고 한다. 22세에 다시 청진으로 가서, 성계와 전복을 잡아 6천원을 벌었다. 청진에 갈 때에는 배를 운영하는 친정아버지를 따라 간 것이었다. 거기서 물질하며 한 해 번 것으로 친정아버지와

45) 자택에서 면담, 2014.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생애사 조사보고서』, 2014, 271~274쪽).

살았고, 또 한해 번 것은 시아버지를 드렸다. 당시 청진에는 명태잡이 하리간 제주도 사람들이 많았다. 또 일본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사람들과는 아침에 모여 체조하고 숨는 방법도 연습했다. 청진에 살면서 부산에 다니러 오기도 했다. 고향으로 돌아 온 후 남편은 일을 좋아하지 않아 시집에서 미움을 받았지만, 그녀는 시아버지를 봉양하며 물질하였다. 물질로 돈을 벌면 시아버지는 “어디 받을 사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후에 다 큰 재산이 되었다. 그렇게 “밭 사는 돈은 바다에서 나왔다.”

강씨 할머니는 15세에 부산으로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섬 밖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생활 반경은 제주-청진-통영-제주로 이어지는 동남해 연안 지역이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 살며 바깥물질을 하였고 채취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재산을 일구었다. 가계경제를 지탱한 것은 그녀의 물질 노동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첫째, 그녀가 언급했듯이 받을 사는 부(富)의 원천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제주-부산-청진-통영-제주로 연결된 한반도의 남동해 연안 바다였다. 둘째, 물질은 섬 밖으로 그녀를 이끌었으며 섬의 안과 밖을 잇는 하나의 생활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런 면에서 물질은 전통적 여성에게는 제한되었던 여성의 바깥생활이 용인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물질은 여성으로 하여금 생활세계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채취가 가능했던 식민지시대라는 특수성도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잠수들의 이동은 특정 해산물과 결부되어 전개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동의 시기와 지역에 해산물의 서식생태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여 잠수들이 바닷 속으로 들어가는 어장은 북으로 확장되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해산물 따라 형성된 모자이크 네트워크

1996년 간행된 『제주의 해녀』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었던 한 잠수의 구술을 기록하고 있다. 고 강예길 할머니(행원리, 출생년도 불명)의 구술을 토대로 한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녀가 제주에서 부산, 그리

고 청진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범위 안에서 계절적 이동을 하였다. 겨울철에는 부산에서 물질하다 봄이 되면 청진에서 홍합을 캐고, 다시마 채취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3개월 물질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을 갔었다고 한다. 그때의 나이 스무살, 스무 한 살 때였으며, 함께 간 13명의 잠수들도 모두 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십 여명의 제주 잠수들은 인솔자를 따라 갔고, 현지에 숙박은 물론 어장 관리자(주로 개인사업자)가 있어 요구하는 해산물을 집중적으로 채취하는 것이었다.⁴⁶⁾

이 사례에서 처럼, 첫째 잠수들은 계절별 해산물의 생육시기와 종류에 따라 채취지역을 옮겨가며 일하였고, 그 북한계선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러한 이동을 만드는 것은 상인들의 수요였다. 상인의 요청에 인솔자들이 잠수들을 모집했고 이에 응한 잠수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상인 - 모집인솔자 - 어장 관리자 - 제주 잠수로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들은 단일 조직체계를 가진 조합형태가 아니라 개별적 계약과 하청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타지로 출어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 외에도 도피의 목적으로 출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산옥(1925년생)씨는 열여섯 살 즈음 ‘처녀들은 군인으로 뽑아간다’라는 말을 듣고 대마도로 물질 갈 생각을 하였고, 40명의 잠수들이 한 인솔자를 따라 대마도로 갔다고 한다.⁴⁷⁾ 또 잠수의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상인들의 어장 개척이 이들의 출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중국 청도에서 잠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한 상인의 사업구상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⁴⁸⁾ 그런데 이처럼 타지의 출어는 현지의 정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귀향을 전제로 하였고, 또한 출어 잠수들은 한 곳에 집단 합숙을 하는 등 현지 생활세계에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타지로 확산된 생활세계는 현지의 이문화 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해양생태라는 자연환경과 더 긴밀한

46) 제주도, 앞의 책, 466쪽.

47) 자택에서 면담, 2014.1.5.(제주특별자치도, 위의 보고서, 2014, 266~268쪽).

48) 제주도, 앞의 책 참조.

관계 속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 낯선 사회를 만나고 있었다.

2) 조선 출어의 이동경로와 거점지

2014년 9월, 미에현 토바시(鳥羽市) 토우시지마(答志島) 가을운동회에서 만난 한 노인은 한·일 해녀의 역사는 천초의 역사라고 말했다. 올해 79세인 나카가와씨(中川秀男, 1934년생)의 모친은 천초를 채취하기 위해 조선에 갔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조선 해녀들이 사용하는 두렁박이 일본과 달라 “조선오케”라고 불렀다며 모친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은 모친이 천초를 채취하러 조선에 간 것이기에 천초를 통해 한·일 교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초 채취를 위한 조선 출어 이야기는 시마시(志摩市) 와구(和具)에서도 마을노인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시마해녀들이 조선에서 출어한 후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이동을 반복했다. 마을 해녀들의 조선 출어세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와구 마을 해녀들의 이동경로

시마시 와구(和具)의 니시오카 토시에(西岡 としゑ, 1900년생)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가 처음 조선에 갔던 것은 16살 때인 1916년이였다. 스물세 살 때까지 8년 간 여덟차례에 걸쳐 조선에 출어했다. 당시의 이동 경로를 보면, 와구에서 나키리(波切)로 걸어간 후, 나키리항에서 배로 토바로 갔으며, 토바에서 기주항로 기선(汽船)을 타고 고베를 거쳐 시모노세키로 갔다.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하룻밤을 자면 부산에 도착했다. 그녀의 기억에 토바에서 부산까지의 당시 운임은 10엔 50전이었다고 한다.

〈표 6〉 시마해녀의 조선출어 이동경로의 예(1910-1920년대)

와구 (和具)	도보 →	나키리 (波切)	승선 →	토바 (鳥羽)	중기선 (고베항 경유) →	시모노세키 (下関)	관부연락선 →	부산 (釜山)
------------	---------	-------------	---------	------------	-------------------	---------------	------------	------------

부산에 내리면 마중 나온 자와 함께 순항선을 타고 영도로 건너갔다. 영

도에서는 이미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배 한 척에 와구(和具) 해녀들만 14명, 남자는 사공 1명과 보조자 1명으로 모두 16명이 탔다. 3월에 해녀들이 도착하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출어했다. 그리고 9월이면 각 어장에서 배들이 돌아왔다. 약 6개월의 어기가 끝나면 돌아온 배들을 영도에서 수리했다. 영도에서 해녀들을 태운 배는 4척이 한 선단이 되어, 노를 저어가며 자맥질을 하였고, 그렇게 조선의 동해안을 북상해 갔다. 당시 부산의 근해에는 큰 소라들이 많았고, 주로 나가사키 오도(열도) 출신들의 배에는 해녀도 있었지만 남자 아마(海士)가 많았다. 제주도에서 온 해녀(“잠수”라 부름)도 있었지만, 잡은 양은 일본에서 온 해녀에 비하면 적었다.

앞의 니시오카씨의 경우와 다른 경로의 출어 사례도 있다. 오무라 하쓰에(小村 ハツエ, 1908년생)씨도 시마시 와구 출신으로 그녀의 조선출어는 니시오카씨와는 조금 다르다. 1925년 그녀는 와구를 출발해 나키리까지 걸어서 간 후, 나키리항에서 기주항로의 기선을 타 오사카에 내렸다. 거기서 2박을 한 후 어용선(기선)을 탄 후 부산항에 도착했다. 두 번째 출어 때는 좀 달랐다. 나키리에서 소형기선을 타고 토바로 갔고, 거기서 기차를 타서 오사카로 갔다. 다시 오사카에서 어용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표 7> 시마해녀의 조선출어 이동경로의 예(1925년)

첫 번째 출어	와구 (和具)	도보 →	나키리 (波切)	증기선 →			오사카 (大阪)	어용선 →	부산 (釜山)
두 번째 출어	와구 (和具)	도보 →	나키리 (波切)	소형기선 →	토바 (鳥羽)	기차 →	오사카 (大阪)	어용선 →	부산 (釜山)

오무라씨가 부산항에 내렸을 때, 회사 배가 기다렸다가 해녀들을 태웠다. 발동기선으로 2일 걸려 장오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고, 그곳은 “이시모토구미(石本組)의 기지”였었다. 그곳에 해녀들의 작업장인 아마고야가 나란히 있었고, 해녀의 선단은 2척으로, 해녀 15인에 “도마에”(선상에서 보조역할하는 남자)와 다른 보조 남자 등 2인이 탔다.

장오리 기지에서 출어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출발, 여름에

는 오전 5시부터 나갔고, 채취작업은 9시가 조금 지나면 시작했다. 한류가 오는 때에는 배에서 논다든지 작업을 하지 않았다. 같은 장오리 기지에 살았던 나가사키 남자아마와 노래경연을 벌인다든지 하면 언제나 이기는 것은 시마해녀들이었다. 시마해녀와 나가사키 남자들 사이에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채취한 것은 전복뿐이었다. 이 생활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 기지에는 나가사키 오도(五島) 출신의 남자아마들이 살았지만 아마구치현과 그 외 지역에서 온 해녀는 보지 못했다. 조선 해녀(“잠수”라 부름)와 한 배에 살기도 했었다고 한다.⁴⁹⁾ 장오리에는 일본인 잠수부 배(잠수기선으로 추측됨)가 2, 3척 있었고 조선인 잠수부도 있었다.

이 구술에 의하면, 앞의 니시오카씨의 경우와 달리 오무라씨는 회사에 고용되어 출어하고 조선에서 배정된 기지(마을)에서 작업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미에현조선해통어조합에 고용된 해녀들의 출어가 아닌가 고려된다. 조합을 통해 어장을 산 어장주인의 기지에서 일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이것은 니시오카씨가 영도를 거점으로 어로생활을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무라씨는 이미 어장을 산 상인의 바다에서 채취작업을 하였고, 잠수기선이 있었던 곳에서 채취작업을 했다. 결국 동해안 장오리 바다는 잠수기선과 일본 아마들의 전복 어장이었다. 아울러 두 경우 모두 10대 해녀의 출어였고, 함께 간 해녀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해녀 이동의 거점, 부산 영도(影島)

시마의 해녀들은 조선 출어 초기, 작은 배에 10명 정도의 해녀가 타서 노를 저어가며 부산으로 왔으나,⁵⁰⁾ 1915, 1916년부터는 관부연락선을 이용해 오갈 수 있었다. 시마해녀들에 앞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마구치현(山口縣)와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아마(海女, 海士)들이 앞서 출어해 있었고, 특히 오도열도(五島列島)의 사람들은 시마해녀들이 조선으로 출어할 때 인솔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⁵¹⁾ 시마시의 향토사(『志摩町史』)에 따르면 시마

49) 福田清一, 『志摩と朝鮮を小舟で往復した志摩の海女』, 海の博物館(所藏), 2006, 221쪽.

50)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30쪽.

51) 福田清一, 앞의 책, 167~168쪽.

반도의 거의 모든 해안마을에서 해녀들의 조선으로 출어하고 있었다.

〈표 8〉 1919년~1920년경 시마반도 해안마을 어민들의 출어 현황

마을	출어 현황
가타다(片田)	조선으로 타관별이 나선 蠶婦(해녀) 50여 명, 이즈(伊豆) 8~9명, 기주(紀州) 15~6명
후세다(布施田)	어부의 기주방면에 10 명 내외, 조선 타관별이 나선 蠶婦 4~5명
와구(和具)	어부 수백 명, 蠶婦 백 명, 방적 2백 명, 차(茶)따기 오십 명, 밭농사에 백 명, 합계 약 1천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감. 나간 곳은 어부는 기주가 많고, 蠶婦는 조선과 이즈, 기주방면으로 전북, 천초 채취에 종사
고시카(越賀)	타관별이를 하는 사람은 蠶婦이고, 많은 때에는 70여명에 이르기도 하고 근래는 30명 내외로 감소. 기주와 조선 경상도 방면에서 석화채, 전복 등 채취채포에 종사
고자(御座)	타관별이 지역은 이즈 남북 지방으로 전북, 석화채를 채취하는 蠶業(해녀어업)에 종사

자료: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志摩町史』, 2004, 203쪽.

시마시(志摩市)의 가타다(片田) 마을은 시마반도의 가운데 지경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일명 “아메리카 마을”이라고 하는 등 이 마을 사람들의 약 20인 가운데 1명이 이주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주민들(해녀)의 조선 출어1899년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에는 쿠마노 앞의 거친 바다를 노를 저어 건넜다. 혼슈(本州)와 시코쿠(四國) 사이의 좁은 바다(瀬戸内海)를 통과하면 쓰시마를 지나 부산 영도(影島)에 다다를 수 있었다.

후쿠다 키요가즈(福田清一)는 조선에 출어했던 가타다 사람들 102명의 명부와 가족관계, 직업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기록에 의하면, 가타다 마을사람들은 부산 영도에 이주어촌을 만들어 약 30년간 거주하였다. 조선에서 마을사람들은 어부이거나 해녀, 해녀 모집일, 통조림공장 사업, 잠수기구 수리 등의 일을 하였다.⁵²⁾

해녀들이 오갔던 지명을 정리해보면 〈표 9〉와 같다.⁵³⁾ 여기서도 알 있

52) 福田清一, 앞의 책, 157쪽.

듯이, 해녀들은 영도로 거점으로 삼아 각 지로 이동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었다. 영도에서 출발해 울산, 울산에서 다시 영일만, 영일만에서 울진으로, 울진에서 삼척, 삼척에서 울릉도, 혹은 이양 등지로 이동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하나의 거점을 기지로 주변 어장에서 일을 한 후 다시 이동해 새로운 거점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이들은 천초 외에도 전복을 채취하였다.

<표 9> 시마 해녀들의 이동 범위

지명	거리	
	홍남-김책	약 120km
원산-홍남	약 80km	43리
삼척-울릉도	약 130km	70리
삼척-이양	약 90km	50리
삼척-원산	약 250km	135리
울진-삼척	약 50km	27리
울진-울릉도	약 130km	70리
영일만-울진	약 120km	65리
울산-영일만	약 90km	48리
울산-울진	약 160km	85리
영도-원산	약 520km	280리
영도-영일만	약 150km	81리
영도-울산	약 60km	32.5리
영도-울릉도	약 280km	150리
영도-거제도	약 54km	30리
영도-거문도	약 170km	92리
영도-제주도	약 250km	135리
거제도-거문도	약 90km	50리
거문도-제주도	약 80km	43리

이렇게 출어하던 시마의 해녀들은 1930년대 이르러 ‘해녀’의 출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주도” ‘잠수’가 조선본토에 많이 출어해서 일본의 해녀는 1929년경을 마지막으로 조선에 출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⁴⁾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해녀들보다 제주 잠수들이 더 많이 출어했는가에 대해서는 잠수들의 잠수능력이 탁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잠수들에 앞서 일본 해녀들은 수경(水鏡)

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채취 기술에 있어서 일본 해녀들이 더 나았다고 한다.⁵⁵⁾ 제주 잠수들의 채취 기량은 어로도구의 수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러나 수경은 19세기 말부터 잠수들에게도 점차 전파되었기에, 이들의 잠수기량만이 아니라 이동에 영향을 미친 여타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시대 이전부터 조선으로 출어해 온

53) 위의 책, 162쪽. 표는 필자가 작성.

54)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00쪽.

55) 塚本明, 앞의 논문, 55쪽.

시마의 해녀들은 식민지시대 어업근거지 이주규칙에 따라 이주집단의 조건이 정비되어 감에 따라 ‘해녀의 출어’ 양태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 있다. 또 앞서 지적했듯이, 식민지시대 제주 잠수에 대한 저임금 노동시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5. 맺음말

한·일 해역에서 식민지시대 한·일해녀들의 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의 이동에 관해서는 지역의 향토사 혹은 전통문화와 수산경제사적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이 글은 해역을 무대로 하여 그동안 간과되어 온 생태적 측면에서 이 시대의 이동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이동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조공체제 하의 해산물 교역과는 달리 일본 제국주의의 산업 및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열린’ 어장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었다. 주로 채취한 것은 천초와 감태였으며 전복을 잡기도 했으나, 식민지 조선의 주변 어장에서는 일본의 잠수기선들이 해녀의 역할을 대신했다. 천초는 산업원료, 감태는 군수산업의 원료였으며, 전복은 서양의 근대적 잠수기수를 접목시켜 대량채취가 가능해진 해산물이 되었다. 잠수기선의 식민지 조선 어장에서의 전복잡이는 전복의 먹이인 감태의 채취 및 계속된 전복의 남획 등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파괴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파괴적 해양자원의 남획은 ‘식민지 바다’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주 잠수들은 현금소득의 기회로서 “모집”에 의한 일본으로의 출어가 전개되었고, 일본 시마의 해녀들은 부산 영도를 거점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을 반복적으로 오갔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 해녀들의 출어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의 기량이 떨어져서라기 보다는 식민지 여성노동력인 제주 잠수들의 저임금 시장구조가 형성된 데에 따른 것이다. 출어했던 제주 잠수나 일본 시마의 해녀들은 출어를 통해 그들의 노동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가구의 생계 및 마을경제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에서 해녀

노동력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부응한 사회적 지위 상승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여성노동을 더 강화시킨 역설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들의 이동은 해산물이 있는 어장을 따라 확장되어 간 것으로, 제주 잠수들에게 그것은 섬과 바깥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생활세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집”을 통해 이동하는 하청 구조와 개별적 네트워크에 따른 모자이크식 이동이 이뤄졌다. 시마의 해녀들의 경우는 개별적 이동 외에도 조합에 고용되어 조직적으로 이동하였다. 일부는 조선에서의 정주사회를 형성하기도 했다. 1930년대 이르러 이렇게 상호 출어하던 한일 해역에서 시마 해녀들의 출어보다 제주 잠수들의 출어가 지배적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잠수들의 채취능력과 함께 저임금 채취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던 데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에서 양국 해녀들의 이동을 통해 볼 때 식민지시대는, 1) 해양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식민지 조선의 해양생태는 자원의 재생산 메커니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며, 2)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산업적 - 특히 군수품의 - 원료로서의 가치가 일상적 가치에 우선하였다. 3) 양국의 해녀들은 현금소득의 기회 및 새로운 어장으로의 진출이라는 생계적 차원의 이동이 나타났고 각기 해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한 4) 전복잡이의 주요 담당은 해녀가 아닌 잠수기선이 대신하였으며, 5) 이것은 서양의 잠수기술의 일본식 변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 조선에서의 잠수기선에 의한 전복잡이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소득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기층 여성집단의 해양 노동세계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은 미약하며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영역이다. 이들의 노동은 지역 사회 여성의 경제적 활약을 보여주는 미담(美談)으로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해양생태와 직접적으로 밀착된 이들의 어로활동을 해양생태, 그리고 해양생물을 상품화 하는 시장구조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출어 역사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아직도 면밀히 규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시대 양국 해녀들의 이동은 ‘바다와 일본 제국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특수한 것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해녀들의 노동을 통해 산업원료를 충당할 수 있었으며, 해녀들은 이 기간동안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이동의 생활세계를 형성하였다.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이동했던 이들은 제주도의 잠수(潛嫂)들이었다.

K C I

참고문헌

1. 자료

- 開澤明清, 『朝鮮近海漁業視察』, 外務省通商局 第課, 1894.
大場俊雄, 『房總の潛水器漁業史』, 崙書房, 1993.
稻井秀左衛門, 『朝鮮潛水器漁業沿革史』, 朝鮮纖維協會, 1937.
福田清一, 『志摩と朝鮮を小舟で往復した志摩の海女』, 海の博物館(所藏), 2006.
石原翁伝刊行委, 『石原圓吉翁伝』, 東京: いさな書房, 1969.
濟州島廳, 『濟州道勢要覽』, 朝鮮印刷, 1939.
志摩町史編纂委員會 編, 『志摩町史』, 志摩町教育委員會, 2004.
『東亞日報』

2. 저서

- 강대원, 『濟州潛嫂權益鬭爭史』, 제주: 제주문화, 2001.
김영돈,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1999.
제주도, 『濟州의 해녀』, 제주: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제주: 파피루스, 2004.
제주특별자치도, 『숨비질 배왕 늬주지 아녀: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보고서』, 2014.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각, 2004.
尾本恵市・濱下武志 외 10인, 『海のアジア』, 김정환 역, 『바다의 아시아』 1, 서울: 다리미디어, 2003.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東京: 岩波書店, 2008.
三浦定之助, 『海草』, 東京: 佃書房, 1943.
Fernand Braudel, *LES-MÉMOIRES DE LA MÉDITERRANÉE*, 강주현 역, 『지중해의 기억』, 서울: 한길 히스토리야, 2006.

3. 논문

- 김수희, 『日帝時代 濟州 海女の 海藻類 採取와 入漁』, 『濟州海女: 抗日運動, 文化遺産, 海洋文明』,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2006.
- 김영·양징자,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제주: 각, 2004.
-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이동과 갈등을 중심으로』, 『耽羅文化』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_____, 『‘열린’ 바다 위의 분쟁: 식민지 관행과 해양자유론의 재고찰』, 『日本學』 제34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 이지치 노리꼬, 『제국 일본과 제주도 출가 잠수』, 『글로벌시대의 여성과 생활실천』, 동국대 일본학연구소(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11.
- 최성애, 『해녀의 이주생활사: 부산 용호어촌계 해녀에 관한 사례연구』, 『水産業史研究』 2, 수산업사연구소, 1995.
- 塚本明, 『近代の志摩海女の出稼ぎについて』, 『三重大史學』, 三重大學, 2010.

〈Abstract〉

The Movements of Women Divers and Marine Resources in the Colonial Period of Korea and Japan

An, Mi-Jeong

This study considers the social character and the social meaning of women divers in Korea and Japan who worked in the sea of Korea and of Japan through their migrational seafood gathering. Through their labor and their move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biological aspec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instead of the traditional economical and individual evaluations. The Women diver's movement has been considered mainly in terms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ocal history. This movement started under Japanese rule in Korea. Unlike, the traditional trade among the regimes in Korea and Japan that revolved around tribute to China, this period shows significant changes in resources and human movement. It is the sea of Korea and Japan that indicates specific examples.

The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Japanese demands for seafood caused the movement of the women divers in Korea and Japan. They gathered seafood for industrial and military supplies. Whereas it is profitable for the women divers, it is followed by extension and destruction of fishing ground. For example, I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1) the reproductive mechanism from maritime ecological perspective was not considered. 2) Socially, industrial value - specifically as military supplies took priority over day to day value. 3) Although Korean and Japanese women divers had opportunity of cash earnings, Jeju diver's labour has been underestimated. 4) While Japanese diving boats intensively collected abalones, Korean and Japanese women divers were only able to work on gathering seaweed. 5) These diving boat skills used for collecting abalones indicate that Japanese adopted western techniques and its high yield throughout the Pacific coast. 6) Furthermore,

productivity of the diving boats did not contribute to the local resident's income. To be specific, the movement of Jeju divers reached the Korean peninsula, Japan, China and the Russian coast. A Network based on seafood collecting in the sea of Korea and Japan among male guides, local landlords enabled the movement. Thus, the movement of women divers was a special phenomenon that occurred during the expansion of Japanese imperialism based on marine resources. The movement of women divers expanded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ir seafood was taken as a raw material for Japanese industry. The majority of divers who moved between the Sea of Japan and Korea were the women divers of Jeju Island(*Jamsoo*).

*Key Words: Women Divers(*Jamsoo* and *Ama*), Maritime Resources, Movement of Women Labor, Japanese Imperialism,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韓日海域).

· 논문투고일: 2016년 1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23일 · 게재결정일: 2016년 2월 24일

к с і